

광엽잡초

■ 이인용 농촌진흥청

여뀌

종자로 번식하는 마디풀과 일년생잡초로 습지, 늪, 냇가, 논, 논둑, 다습한 밭과 밭주변에서 군생하는 잡초이다. 줄기는 곧게 서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높이 40~60cm이며 홍갈색을 띠고 전 식물체에 거의 털이 없다. 줄기가 사람의 발에 밟혀 땅에 닿아도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번식하기도 한다. 꽃은 6~9월에 옅은 홍색으로 피며 가늘고 길다. 논에서 발생한 여뀌는 대부분의 토양처리형 논제초제로 방제가 가능하나, 물관리 및 써레질을 잘못하고 토양처리제 처리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경엽처리제로 방제할 수 있다.



사마귀풀



종자로 번식하는 닭의장풀과 일년생잡초로 논둑 옆에 많이 발생한다. 4월경부터 발생하여 11월까지 피해를 주며 재생력이 강해 줄기의 마디에서도 뿌리가 내린다. 줄기는 비스듬히 갈라져 기면서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높이 10~30cm이며 전체적으로 연한 녹색이나 홍자색을 띤다. 9~10월경 줄기의 끝이나 잎자루 끝에서 담홍자색 또는 백색의 꽃이 1개씩 핀다. 발생전에 토양처리형 제초제를 살포하여 종자발아를 억제시킬 수 있으며, 발생 후에는 경엽처리제 살포로 방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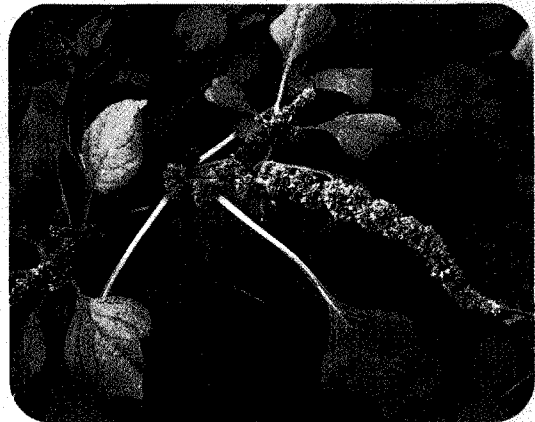
고마리



종자로 번식하는 마디풀과 덩굴성 일년생잡초로 습지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습성이 있다. 주로 논둑, 용수로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백색 또는 홍자색의 꽃이 핀다. 4~5월경에 담수 또는 포화수분 조건이 되면 종자로부터 일제히 발아한다. 줄기의 밑부분은 땅을 기며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상부는 곧추서며 높이 30~70cm이다. 대부분 수로변에 발생하는 관개로 토양처리형 제초제에 의한 방제 기능성은 검토가 안된 상태이다. 제초제를 이용할 경우는 비선택성 경엽처리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개비름

식물체 전체가 부드러운 비름과 일년생잡초로 줄기는 높이 30cm 내외로 털이 없다. 꽃은 6~7월에 피며 인가 근처와 밭에 종자로 번식한다. 종자의 전파는 바람, 비, 동물, 사람에 의하며 사료에 섞여진 종자를 소가 먹어도 생존하여 또다른 전파 수단이다. 종자 생산량은 주당 2,000~10,000립 정도이고 빛이 있어야 발아하는 광발아성이다. 어린 순을 '비름나물'이라 하여 식용으로 이용되지만 발작물에는 피해를 주는 여름철의 주된 발잡초이다. 잡초발아전 토양처리형 제초제를 살포로 방제할 수 있다.



가시비름



열대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비름과의 일년생잡초로 악성 외래잡초 중의 하나이다. 길이 5~20mm의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줄기 기부에 있어 가축이 섭식을 기피하며 인축에 피해를 준다. 건초나 사료용 곡물에 혼입이 되어 국내에 1970년대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5월부터 발생하며 높이 40~100cm정도 자란다. 가시비름은 경엽처리형 제초제로 방제할 수 있으며 방제적기는 가시비름의 초장이 30~50cm 내외인 6초순부터 7월 초순까지이다. Y